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형구*, 선우영수**

A Study on satisfaction of year-end-settlement for employee

Hyoung-Gu Kim *, Young-Soo Sun Woo **

요약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제도의 인지정도에 따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효과와 연말정산에 대한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정산제도 인지정도가 연말정산 참여도에도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를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참여하게 되어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근로소득자들에게 대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recognition of year-end-settlement affected on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tax return according to the tax law and its influence on the participation of employee. After the careful analysis, the founding of the satisfaction level of workers from the annual tax retur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hen the knowledge of year-end-settlement is high, it influences positively on the effectiveness of tax return for workers. The recognition of tax return system is the main ingredient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tax return. Although the recognition of year-end-settlement did not affect on the

• 제1저자 : 김형구 교신저자 : 선우영수

• 투고일 : 2009. 07. 21, 심사일 : 2009. 07. 24, 게재확정일 : 2009. 08. 26.

* 국제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 강원대학교 경영관광회계학부

※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40차 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확장한 것임.

satisfaction of workers directly, effectiveness of tax deduction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year-end-settlement are closely linked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tax return. It is confirmed that when the recognition of year-end-settlement is high, the more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year-end-settlement and it contribute to the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employee. As a result,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the ways to promote and educate annual tax return system to workers as well as revise the tax law to maximize the year-end-settlement for employee.

▶ Keyword : 연말정산(year-end-settlement),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근로소득(income)

I. 서론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따르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 없이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러한 조세의 일차적인 기능은 재정수입의 확보이며, 일정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조세는 최대한 자원배분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 간의 세금부담 불공평문제는 우리 세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여러 변형적인 모습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1].

이러한 양 계층 간 세금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자의 매출 소득포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통해 양자 간의 불공평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가 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혼인, 장례, 이사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와 같이 근로소득자의 필요적 경비지출을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와 함께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적은 근로소득세액 공제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와 같은 각종 소득공제제도에서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세금절감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가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2.1. 근로소득세의 개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구분하며, 소득세 법상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급여성 대가와 경제적 이익 등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2]. 그러나 모든 대가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등과 같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 비과세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납세의무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근로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일반급여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과세방법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피고용자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조건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다음해 2월 급여시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말정산시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각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국가적으로 지원되거나 인정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여 개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간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2.2. 근로소득세의 특징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3]. 첫째, 근로소득세는 개인소득세로서 직접세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의 가계 소비를 직접 과세에 반영하기 위한 최저생활비 보장과 개인이 처한 인적사항을 고려하여야만 담세력이 적정하게 측정된다. 둘째, 근로소득세는 과세방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구체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징세비를 최소화하고 복잡한 신고절차 없이 충분한 세원을 확보관리할 수 있다. 셋째, 근로소득세는 많은 납세의무자를 가지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많은 납세의무자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인적 노동을 자본으로 하는 것 이어서 세법상 우대되어야 한다.

2.3. 근로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근로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를 노동공급의 측면과 노동이동에 대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첫째,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를 보면, 소득세가 부과되면 세액을 공제한 임금이 세액만큼 감소하므로 실질임금을 저하시킨다. 소득세가 근로의욕을 상실하도록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세된다고 하여 근로시간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득세는 확실히 세액공제후의 임금을 인하시키게 된다. 그 때문에 여기에 비하여 매력을 느끼지 않아서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대체효과). 그것과 동시에 가져분소득의 감소는 바람직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연장시키게 할 것이다(소득효과). 따라서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와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소득효과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인가에 따라서 근로의욕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둘째, 직업선택과 노동이동에 대한 효과를 보면, 소득세가 부과되면 노동자들은 조세를 고려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 어떤 직업에 대한 근로공급을 증대시키고 다른 어떤 직업에 대한 근로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처럼 소득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소득세가 직업의 금전적 보수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비금전적인 보수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퇴직금 등 임금의 지급은 과세에 관대하며, 이러한 임금의 지급은 직장에 오래 있을수록 커지게 된다. 결국 노동이동은 임금의 지급 때문에 억제될 수밖에 없다.

2.4.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와 소득공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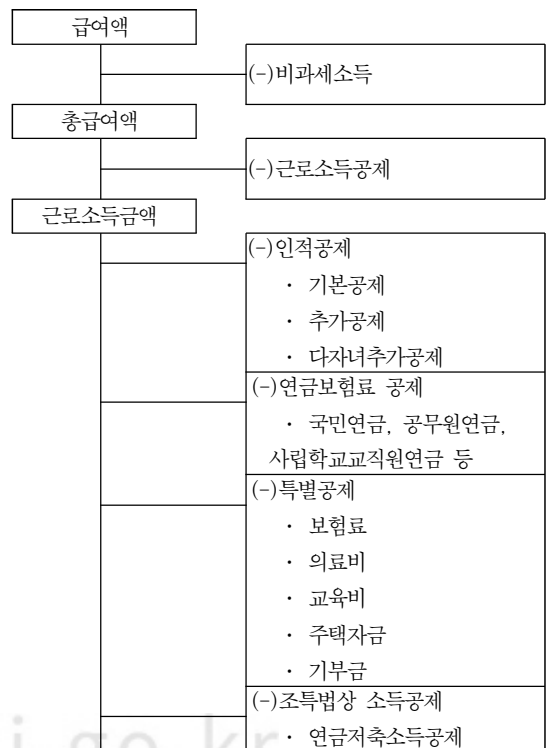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과 같은 담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을 과세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5].

아울러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분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내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근로

소득금액의 산출과정과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절차 등 사실상 종합소득세와 상이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과세체계와 소득공제내역은 연간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근로소득공제는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6].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예납적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이라 하여 다시 종합과세의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그동안 원천징수로 압부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절차가 완료되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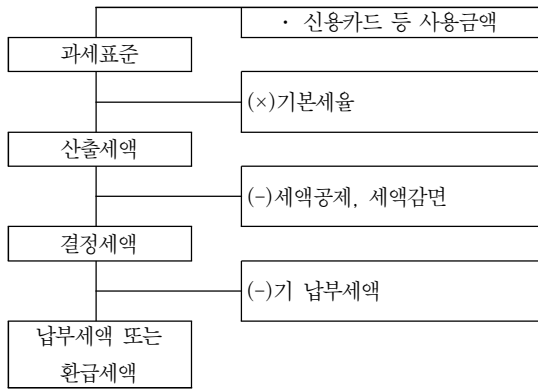


그림1. 근로소득세 과세체계와 소득공제 내역
Fig. 1. Taxation system & Deduction of Income Tax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3.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가 인지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인지정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소득공제 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 등의 변수들이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들 변수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림 2>과 같은 연구모형을 만들고, 실증분석은 SPSS 10.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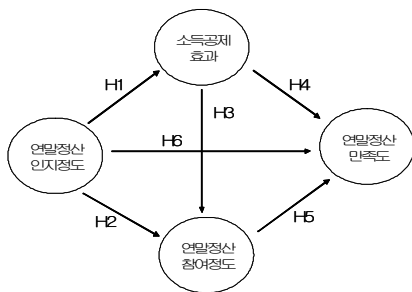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Fig 2. Conceptual model

3.1.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그림2>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인지정도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의 시기와 연말정산 대상 소득 파악, 연말정산 방법, 소득공제 항목들을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제도의 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와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참여도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6. 연말정산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공제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의 소득공제효과가 높을수록 연말정산의 참여도와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소득공제 효과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참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4. 소득공제 효과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전략, 증빙자료 수집, 세금절감 노력 등의 연말정산 참여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연말정산 참여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연말정산 만족도에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이를 통해 나타나는 세금부담의 적정성과 타소득과의 공평성을 비교를 해보았다.

3.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공제제도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그 인지 정도가 소득공제 효과를 신뢰하여, 연말정산에 적극 참여하고 그로 인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총 900여부를 배부하여 218부(회수율 24.2%)를 회수하여 답변이 불충실한 자료를 제외시키고 202부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표1>과 같이 나타났다.

표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A profile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12	55.4
	여자	90	44.6
연령	20대	62	30.7
	30대	101	50.0
	40대	31	15.3
	50대 이상	8	4.0
직업군	일반사무직	83	41.1
	회계·금융관련직	49	24.3
	기술직	25	12.4
	공무원	11	5.4
	영업직	8	4.0
	기타	26	12.9
연소득	2,000만원 이하	76	37.6
	2,000만원대	53	26.2
	3,000만원대	41	20.3
	4,000만원대	22	10.9
	5,000만원대 이상	5	2.5

IV. 실증분석

4.1. 척도 정제

4.1.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신뢰성(Reliability)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검증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의 신뢰성 판단기준은 α 계수값이 0.6 이상이어야만 설문지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7,8,9]. 또한 국내 마케팅분야 연구의 α 계수의 평균값은 0.7685로 나타났다 [10]. 이러한 평가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변수들의 각 항목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2>과 같이 0.8453에서 0.7191까지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높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표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Table2.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요인	설문내용	요인의 설명력	요인 적재값	신뢰계수 (Cronbach's α)	최종 항목수
연말정산 인지정도	연말정산시기	.782	.848	.7191	4
	연말정산대상소득	.735	.827		
	연말정산 방법	.811	.884		
	소득공제 항목	.828	.840		

소득공제 효과	근로소득공제효과	.711	.843	.8378	4
	인적공제효과	.629	.793		
	특별공제효과	.588	.767		
	세액공제효과	.804	.897		
연말정산 참여도	질세전략	.740	.860	.8453	3
	증빙자료수집	.767	.876		
	질세노력	.785	.886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	결과 만족	.569	.754	.7284	3
	세부담의 적정성	.715	.846		
	타소득과 형평성	.666	.816		

4.1.2.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설문조사 전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내용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O)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GFI(0.90이상이 바람직함), AGFI(0.9이상이 바람직함), RMSR(0.05이하이면 바람직함), χ^2 (적을수록 바람직함), χ^2 에 대한 p값(0.05이상이면 바람직함)을 적용하였다. 또한 증분적합지수인 NFI(0.90이상이면 바람직함)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말정산 인지정도와 소득공제효과에 대하여 1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말정산 참여도와 연말정산 결과만족도는 측정항목수가 3개 이하로 기준치(indicators 3개 = perfect)를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확증적 요인분석결과 <표3>과 같이 모델평가 기준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확증적 요인분석
Table3.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요인	GFI	AGFI	RMSR	NFI	χ^2	p
연말정산인지정도	0.991	0.953	0.005	0.996	2.406	0.301
소득공제효과	0.980	0.901	0.008	0.991	4.866	0.088

연말정산 참여도,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
- indicators 3개 = perfect

4.2.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

4.2.1.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인지정도가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를 매개 변수로 하여 연말정산 결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은 AMOS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 $\chi^2 = 93.464$, p값 = 0.481, GFI = 0.969, AGFI = 0.952, NFI = 0.911, RMSR = 0.932로

나타나 전반적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해 보면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4.2.2. 가설 검증

경로계수분석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인지정도와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3>과 <표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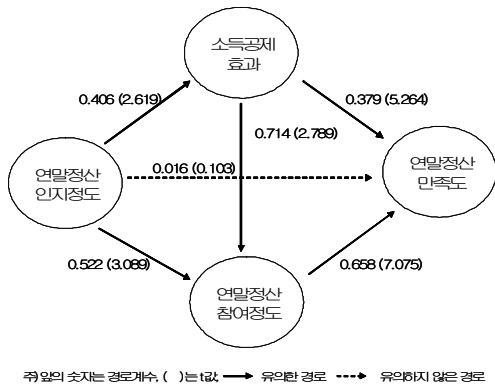


그림 3. 경로계수 분석 결과
Fig 3. final path diagram

표4. 연구가설 검증

Table 4. Hypothesis verification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P	결과
H1	연말정산 인지정도 → 소득공제 효과	0.406	0.155	2.619	**	채택
H2	연말정산 인지정도 → 연말정산 참여도	0.522	0.169	3.089	**	채택
H3	소득공제 효과 → 연말정산 참여도	0.714	0.256	2.789	**	채택
H4	소득공제 효과 → 연말정산 만족도	0.379	0.072	5.264	**	채택
H5	연말정산 참여도 → 연말정산 만족도	0.658	0.093	7.075	**	채택
H6	연말정산 인지정도 → 연말정산 만족도	0.016	0.155	0.103	**	기각

경로계수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연말정산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인지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소득공제 효과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소득공제 효과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연말정산 참여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5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연말정산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4.2.3. 인과효과 분석

최종모형 경로상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재의 최종모형에서의 각 연구 단위들 간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인과효과를 살펴보면 <표5>와 같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인지정도와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서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간에 연말정산 참여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인과효과분석 결과

Table 5. Result of cause & effect analysis

경로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연말정산 인지정도	→ 소득공제 효과	0.504	0.504	0
연말정산 인지정도	→ 연말정산 참여도	0.812	0.617	0.195
소득공제 효과	→ 연말정산 참여도	0.483	0.483	0
소득공제 효과	→ 연말정산 만족도	0.685	0.679	0.006
연말정산 참여도	→ 연말정산 만족도	0.331	0.331	0
연말정산 인지정도	→ 연말정산 만족도	0.744	-0.016	0.760

V. 결론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효과와 연말정산에 대한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 정산 시기, 대상 소득, 방법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 등의 요인들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말정산제도 인지정도가 연말정산 참여도에도 중요한 선행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득공제 효과와 연말정산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를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참여하게 되어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의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증분석을 하여 연구 고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설문조사를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하였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증을 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연구결과를 국내 모든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일반화하는 데는 표본의 대표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표본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방법과 측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표본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윤희,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의 개편방안, 재정논집 제15집 제2호, 168~169쪽, 2001
 [2] 국세청, 알기 쉬운 연말정산, 2008
 [3] 남한서,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소득제도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4] 유한성, 재정학개론, 삼영사, 253~259쪽, 1996
 [5] 정영진,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4
 [6] 최순일, 근로소득의 과세형평성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7]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New York, 1978
 [8] 김형구·손재영·선우영수, “호텔기업의 지식경영 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230~231쪽, 2009년 3월
 [9] 장명복·노형진, “정보품질이 ERP시스템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284-285쪽, 2007년 12월
 [10] 이학식·김영, 연구디자인이 Cronbach's α 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제12권 제1호, 209~221쪽, 1997
 [11] 손광락,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와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 재정논집 제14집 제1호, 133~135쪽, 1999
 [12] 이만우·정규연·정재연·노준화, 세법개론, 세학사, 2008
 [13] 이형래·양성희, 2008 알기 쉬운 세무실무, 어울림, 2008
 [14] 정중철, 2008 연말정산실무, 씨에프오아카데미, 201~517쪽, 2008
 [15] 소득세법,
 [16] 조세특례제한법

저 자 소 개



김형구
 2004년 8월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2002년 ~ 현재
 국제대학 세무회계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정부회계, 회계학



선우영수
 2007년 8월 상명대학교 경영학박사
 2002년 ~ 현재 강원대학교
 경영·관광·회계학부 외래교수
 관심분야 : 호텔회계, 관광경영